

간호학과 남학생의 교우관계 경험

강경자 · 김문정*
(제주대학교 · *부경대학교)

The Experience of Friendship in Male Nursing Students

Kyung-Ja KANG · Moon-Jeong KIM*
(Jeju National University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scribe the experiences of friendship in male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method described by Colaizzi(1978). To collect qualitative data, 21 personal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June to August 2014. Four theme clusters emerged from the data as follows: They experienced as a small fringe group; Female students' world they hardly understood; They conflicted with the different female world; They endeavored to company with female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guide nursing faculties to understand male nursing students' experience as different from female ones, and to support them to realize their full potential to develop into good nurses.

Key words : Nursing, Male,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I. 서론

최근 직종에 대한 성차별적 구별이 점차 사라지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 영역으로 간주되던 간호 영역에 남학생들의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남자간호사는 총 6,202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2%를 차지하였고, 같은 해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남자 합격생은 1,019명으로 남자간호사 연 배출 1천명의 시대가 열렸다. 또한 전국 간호학과 재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 역시 2000년 1.8% (662명)에서 2011년 13.0% (7968명)로 약 12배 증가한 것은(Kim Suk-Hyun, 2013)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방증할 뿐 아니라 간호교육환경의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남자간호사 증가 추세는 직업적인 안정성, 소수 남성들의 빠른 승진에의 기대감, 고취업률 등으로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리라 전망된다(Boughn S., 2001; Choi Sun-Ju, 2003; Evans J., 2004). 그러나 국외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남학생 유입의 급증과 함께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 역시 40~50% 정도로 높게 보고되었다(Stott A., 2004). 남학생들은 간호교육 시스템이 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평등한 실습기회, 다수 집단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한 학교 적응에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O'Lynn C. E., 2004). 그리고 교과과정이나 훈련과정에서 좀 더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경향과, 간호학에 대한 갈등을 더 많이 겪고 있었다(Chan Z. C. Y. et al., 2014). 국내에서도 남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포함한 간호교육과정에서 현실적인 어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787, mjy7955@pknu.ac.kr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부경대학교 신입교수 학술연구비 지원(C-D-2015-0003)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려움 경험하였고(Jung Ok-Bun · Park Hyun-Joo, 2011), 남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여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Yoon-Hee, 2012; Sung Mi-Hae, 2008).

지금까지 간호학과 남학생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남학생의 대학생활과 전공체험 등 전반적인 이해나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고(Choi Sun-Ju, 2003; Kim Mi-Hee, 2004; Lee Jeong-Seop et al., 2005) 초기 임상실습경험(Choi Sun-Ju · Park Kyung-Min, 2001), 신생아실 실습경험(Lee Ji-Won · Baek Kyoung-Sun, 2005), 분만실 실습(Jung Ok-Bun · Park Hyun-Joo, 2011)등 주로 남학생의 실습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과정(Park In-Sook, 2011; Park Young-Rae, 2009), 전공만족과 성적체감(Lee Dong-Jae, 2004), 남자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Kang Kyung-Ja et al., 2014; Kwon Young-Mi · Yeun Eun-Ja, 2007), 남학생의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변수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Kim Yoon-Hee, 2012)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어 주로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기 위한 연구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해보면, 남자간호학생들은 여전히 여성성이 강하게 내재된 간호교육 환경(Chiarell M. · Adrian A., 2014)과 성역할의 구분이 뚜렷한 전통적 성가치관(Lee Kyoung-Ju · Kim Mi-young, 2014)과 관련하여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자 간호학생의 학교적응 장애요인과 개선 방안(Kim Min · Cho Sun-Hee & Jeon Gyeong-Suk, 2014)연구에서는, 남자간호학생들이 간호학 공부를 할 때 경험하는 장애요인을 개인, 학교,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학교영역에서 관계의 범주를 일부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남자 간호학생의 남 녀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학교적응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간호학과 내 남학생의 구성비가 약 12배로 증가되면서(Kim Suk-Hyun, 2013) 남학생의 학과생활을 둘러싼 환경이나 맥락이 변화되

었을 수 있다. 하지만 간호학과 남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한정되었으며 이후 추가적인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와 직업 적응을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갈등의 요인이 되는 여학생들과의 관계나 중요한 지지자원을 제공하는 동료 남학생들과의 관계(Park Young-Rae, 2009) 등 교우관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연구는 물리적인 사건이나 행위뿐만 아니라 어떻게 연구 참여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가 어떻게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므로(Maxwell J. A., 1996) 이에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의 교우관계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를 통해 간호학과 남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의 성공적인 학과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방법

가.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의 대학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Colaizzi P. F.(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심층 서술연구이다.

나. 연구의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에 J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통과 후(IRB number, 2013-32), 자료수집을 시작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면담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득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 후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다.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남학생으로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 정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J시의 1개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와 1개 전문대학 간호과 학과사무실에 전화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1~4학년에 재학생 가운데 면담에 참여 가능한 남학생의 명단과 연락처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간호학과에서 20명, 간호과에서 8명의 남학생의 명단과 연락처를 얻었고, 학생에게 전화로 연구참여 의사를 물었고, 간호학과에서 16명, 간호과에서 5명의 남학생이 연구참여에 동의하였다.

라. 자료수집 및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개별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장소는 연구자들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다과를 먹으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개별심층면담에서는 “간호과 입학부터 지금까지 교우관계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라는 일반여행식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유도적 프롬프트를 활용하면서 면담을 이어나갔다. 이 때 연구자는 가능한 나서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면담은 50분~1시간 30분 소요되었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음성녹음하였고, 녹음자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사하였다. 필사는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읊고 (verbatim), 면담의 분위기나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을 메모에 기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방법으로 석사학위논문과 다수의 학술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고, 질적연구 관련 학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다년간 간호학과에서 남학생을 지도하면서 본 연구의 주제인 간호학과 남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민감성도 가지고 있다.

마. 자료분석 및 연구의 타당도 확보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일차분석에서는 총 21명의 개별심층면담 자료에 대

한 분석이 Colaizzi P. F.(1978)가 제시하는 분석절차를 따라 이루어졌고, 이차분석에서는 2명의 참여자에게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본인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였다.

질적연구의 엄밀성을 확립하기 위해 Guba E. G.(1981)의 네 가지 기준을 준용하였다. 우선 연구자의 이전 선입견을 괄호처리하고 면담과정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신빙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목적적 표본추출을 하면서 4년제와 3년제 간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20~30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1~4학년 남학생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고, 일차분석 결과가 의미와 설득력이 있는지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함으로써 적합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주제와 주제모음, 범주로 추상화하는 과정을 표로 제시하였고, 분석의 근거가 되는 원자료를 인용문으로 삽입하였으며, 연구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감사가능성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빙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을 통해 확증성을 확립하였다(Sandelowski M., 1986).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과에 재학 중 교우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하였으며,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였다. 21명의 연구참여자로부터 얻은 원자료에서 추출한 중요 진술은 총 124개였다. 중요 진술에서 구절과 문장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의미를 구성하였다. 124개의 중요 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는 총 20개였다. 간호학과 남학생의 교우관계 경험에서 구성된 의미로부터 공통적 속성을 조직하여 9개의 주제를 형성하였고, 9개의 주제를 더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조직하여 4개의 주제모음을 형성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간호학과 남학생의 교우관계 경험의 본질적 구조는 ‘비주류의 숙명’, ‘알기

힘든 타자세계’, ‘타자세계와 마찰’, ‘타자세계와 조화’의 4개 주제모음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1. 비주류의 속명

참여자들은 여학생들의 주류사회에 끼지 못하고 소수집단으로서 기가 눌리는 경험을 하였다. 입학 초기 남학생들 간에 지지망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는 홀로 외로운 대학생활을 보냈다. 눈에 띄는 소수자로서 주목을 받았지만, 배려를 받지는 못하였다.

가. 기 눌림

참여자들은 오리엔테이션 때 동기들을 첫 대면하면서 압도적인 여학생의 수에 놀랐으며, 자신들이 주류사회 밖에 있음을 인지하였다. 여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었으나 같은 고등학교 출신끼리 무리지어 다니는 여학생들의 행태로 쉽지 않았다. 동급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19%인 한 참

여자는 여학생에게 기 눌림을 경험한 적은 없으며 여학생들에게 특별한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여자애들 원래 그런데, 끼리끼리 몰려다니잖아요. 아무래도 J시 학교 나오니까 같은 고등학교 애들끼리 너무 많이 다니고 그런 게 많아서 끼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남자도 없고 하니까 기에 눌리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참여자 3)

나. 외로움

참여자들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간호학과로 진학한 유일한 사례인 경우가 많아 남학생들 간에도 서로 면식이 없었다. 첫 학기에 아직 남학생들 간의 지지망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수업을 다니고 터놓고 이야기할 데도 없어 외로운 시간을 보내었다. 하지만 남학생의 상대적인 비율이 높은 1학년의 경우 비주류의 외로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Table 1> Categorizing by Colaizzi’s Method

Formulated Meaning(20)	Themes(9)	Theme Clusters(4)
Being outside the mainstream	Feeling diminished by female students	Destiny of non-mainstream
Female students moving around in groups		
Unseen male students	Being alone	
Weak social support		
Lacking of consideration for masculinity	Attention rather than consideration	
A visible minority		
Different psychological traits	Female students in a different world	Other’s world hard to understand
Different method of solving the problem		
Different order to relations		
Interrupted conversations	Communication deficient	
Enigmatic female students	Fear of rumor	Conflict with other’s world
Easily misunderstood		
Victim of rumor		
Disappointed to irresponsible female students	Conflict with female students	
Receiving low mark in peer review		
Measuring one’s words and behaviors	Efforts to keep company with female friends	Harmony with other’s world
Switching one’s character		
Frequent companies with female students		
Bonding with male students	Male students’ solidarity	
Exchanging support among male students		

“일단 그때는 남자들이랑도 안 친했어요, 저는. 그냥 별로 친해질 뉘도 없었고, 근데 그때 1학기 중반 때 가서야 저희가 막 남자애들끼리 모이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 때부터 조금씩 남자애들이랑 친했지, 저는 그냥 저 혼자 다녔거든요. 8월, 그니까 입학한 3월에 항상 중도(중앙도서관)에 있었어요, 저는. 할 게 없어서. 그래서 너무 너무나 친구가 그리웠고, 더군다나 제 고등학교에서 저 혼자 왔거든요. 저희 과에 친구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참여자 9)

다. 배려보다는 주목받는 성

전통적인 여성의 영역에 진입한 참여자들은 여학생 위주의 간호학과 시스템에서 남성성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였다. 여학생 위주로 셋팅된 간호학과에서 소수의 성인 남성에게 특별한 배려가 없을 때, 차별로 경험되어졌다. 운동시설과 같은 남학생이 필요로 하는 복지 시설은 미비하였고, 학생회도 여학생들의 편의 위주로 운영되었다. 여학생들과 똑같이 파스텔톤의 실습복을 입어야 할 때는 남성성을 억제당하는 느낌이였다. 또 학과에서 물건 운반처럼 힘을 써야하는 일은 물론, 여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남학생에게만 시켜 역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학생회비 쓴 내역 같은 걸 보면, 빗 사구요, 고대기 사고, 저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게 다...(중략) 모든 게 다 여자용품인거예요. 저희 농구 하고 싶거든요...(중략) 농구 골대도 슛 할 때마다 판자가 떨어져서 나오고, 막 기울어져 있고, 그런 것도 좀, 남자도 학생, 똑같이 돈 내고 다니는 학생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여자 8)

전통적으로 여성 영역이었던 간호학과 내에서 남학생들은 눈에 잘 띄고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다. 교수들과 실습지 간호사들도 남학생의 이름을 더 빨리 익혔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자주 질문하고 발표를 시켰는데, 일부 남학생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남학생들 스스로 남성 연장자로서 어린 여학생들보다 매사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책

임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주목받는 소수자, 남성 연장자로서의 위치는 남학생들이 과제와 학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교우관계에서 더 많이 배필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제를 하는데도 뭔가 애들이랑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나 더 해야 될 것만 같은. 시간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고. 교수님들도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시키거나 하면 상대적으로 남자애들이 적으니까 본의 아니게 남자애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발표를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발표 하는 것도 어색하니까 일단은 남자 애들 먼저 시켜보는 경우도 있고 그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뒤흔던 것 같아요.” (참여자 21)

2. 알기 힘든 타자세계

참여자들은 자신들과 성차가 있고 변동적인 존재인 여학생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소통의 부족으로 여학생들에 대한 이해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가. 타자세계의 여학생

여학생은 심리적 특성, 갈등 해결방식, 관계의 질서가 달라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 같았다. 여학생은 알면 알수록 새로운 속성이 나타나는 변동적인 존재였고, 감수성이 민감하였다. 갈등이 있을 때 직접 부딪혀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친한 척 하며 갈등을 가렸다. 그리고 남학생들 사이에 나이는 관계의 질서로 작용했지만 여학생과의 관계에서는 무의미하였다. 참여자 20은 남성 연장자인 자신을 어린 여학생들이 마땅히 대우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여학생들이 나이의 질서를 따르지 않자 배려가 없다고 여기며 마음의 문을 닫았다. 다른 참여자들도 연령이 여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아무 힘이나 의미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남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털거나 아니면 그냥 쌓이다 쌓이다 한 번 뺏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냥 한 번 싸우거나 아예 돌아서거나 아니면 아예 풀고 친해지거나 그러는데, 애네는,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 친한 척 하면서 안 친한 거예요. 보면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거기 잘못 끼면 큰일 난다. 예를 들어서 조심을 많이 하게 되죠.” (참여자 5)

나. 소통의 부족

참여자들은 여학생들과 관계 형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먼저 여학생들과 대화를 통한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다. 남학생이 여학생들의 대화에 끼려고 시도하면 갑자기 대화가 중단되거나 잊기가 힘들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여학생들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대화가 더욱 냉각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아니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아,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애구나. 그런 게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니까 말 하나 하나에도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좀 뭔가 불안한 것 같아요. 막 말하기가, 여기 이 건물 안에서 말하기가.” (참여자 14)

3. 타자세계와 마찰

참여자들은 여학생들의 타자세계와 조우하려는 노력 가운데 마찰을 경험하였다. 서로 다른 상징체계를 사용하면서 자칫 비정상적으로 오인받았고, 눈에 잘 띄는 소수자로서 쉽게 악성 루머의 희생자가 되었다. 소문에 대한 두려움은 솔직한 대화를 어렵게 하여 여학생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가. 소문의 두려움

타자세계에 살며, 다른 상징체계를 사용하는 여학생들에게 남학생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주목받기 쉬운 소수자로서 순식간에 악성 루머의 희생자가 되었다. 악성 루머로 고통 받거나 심지어 그로 인해 자퇴한 남학생들의 사례를 접하였고, 선배들로부터 여학생이 많은 과에서는 소문을 조심해야 된다는 주의를 거듭 들었다.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그로 인해 여학생들과 마음을 터놓는 대

화가 더욱 어려워졌다.

“근데 다만 그 사이에서 도는 소문? 그런 거 되게 조심하게 되요. 여자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 그거 한 번 잘못 나면은 큰일 난다.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들어오기 전부터 여자들 많은 과 들어가면 소문에 한 번 잘못 걸리면 박살난다, 그냥. 학교 때려쳐야 한다...” (참여자 14)

나. 여학생과 갈등

참여자들은 여학생들과 팀과제를 함께 하거나 리더 역할을 하면서 서로 부딪힐 때가 있었다. 팀과제를 하면서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지 않거나 동료평가에서 남학생에게만 낮은 평가를 몰아주는 여학생들에게 실망하였다. 참여자들은 팀리더나 과대표를 맡은 경험이 많았는데, 여학생들이 떠넘겨 마지못해 맡았거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원해서 맡았다. 리더를 하면서 여학생들의 이기적인 태도와 행동을 자주 접하였지만 소문이 두려워 마음대로 자기 표현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학생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또 이제 과대 하면은 굉장히 애들이랑 부딪힐 일들도 많거든요. 부딪히다 보면은 충분히 내가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 남자니까 아, 그래 참자. 이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괜히 했다가 또 잘못 소문 돌아서 어떻게 될까봐 겁나서...” (참여자 10)

4. 타자세계와 조화

참여자들은 학과 적응을 위해 여학생들과 잘 지내려는 노력을 지속하였고 같은 남학생들끼리 연대하였다.

가. 신중한 언행

우선 소문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고 말이나 행동에 신중을 기하였다. 농담이나 장난을 치지 않았고, 대화할 때 눈치를 보았으며, 충분히 화날 만한 상황에서도 참았다. 일부 남학생은 여학생의 민감한 감수성을 이해하고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추어주며 배려하였다.

“역시 소문이...저 원래 친구들이나 몇 명 있을 때

는 말을 많이 편하게 하는데요. 여기 와서는 많이 신경 쓰게 됐죠.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말을, 장난스러운 말도 쉽게 여자애들한테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참여자 9)

나. 캐릭터 전환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여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다보니 여학생을 대면할 때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원래 성격과 다른 성격을 발현하였는데, 참여자는 이를 ‘캐릭터 바꾸기’로 명명하였다.

“처음에는 거의 교회 오빠 이미지였어요...(중략) 그래서 그것보다 차라리 내가 캐릭터를 좀 바꾸면, 바뀌버리면 괜찮을 거 같다...(중략) 옛날에는 화를 못 냈죠. 화를 못 냈는데, 지금은 이제 화를 내도 당연한 캐릭터, 그니까 화를 내도 막 정색을 하면서 낸다기보다, 좀 웃기는 식으로 해서 화를 내거든요. 그 화를 내도 무서운 것보다 좀 애들이 좀 웃는, 저 오빠 웃기다 이런 수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까 괜찮은 거 같아요.” (참여자 20)

다. 잦은 마주침과 어울림

참여자들은 여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자주 어울리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동아리, 스터디 그룹, 학과 행사, 비공식적 모임 등의 여러 모임뿐 아니라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면 친해지게 되었다.

“일단 일 학년이 학년 MT도 따로 갔다 왔고, 뭐 MT 이런 활동에서 친해진 것도 있고. 개강파티나 이런 술자리가 일단 친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과방 같은데 가면 애들 조금 있으니까 수업도, 교양 수업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혼자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과 친구 한 명 있으면 개도 친해질 수도 있고...” (참여자 17)

라. 남학생의 연대

참여자들은 소수집단으로서 학과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남학생들끼리 서로 결속하며 상호지원을 교환하였다. 고등학교 때와 달리 남학생 집단 내에서 서로 놀리거나 무시하는 등의 갈등이 전혀 없었고, 선-후배 관계가 굳게 형성되었다. 선

배는 후배가 덜 힘들도록 학업이나 군대 등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주고, 밥 먹거나 놀 때 부르고 챙겨주었다. 후배는 선배를 의지하며 앞으로도 지속될 관계를 위해 잘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건 훨씬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남학생들이 적어서 더 끈끈해지는 남학생들이랑 관계에 있어서는 남학생들이 적으니까 관계형성에 있어서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끈끈하고. 생각하는 트러블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트러블이 있어서 싸우거나 퍽퍽대는 건 있어도 단체로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 학교의 경우는. 그리고 선후배가 저희 학교는 남자끼리 있어서 좀 심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잘하려는 그런 게 있어서. 계속 보는 거고 계속 볼 사람들이니까.” (참여자 21)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교우관계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비주류의 숙명’, ‘알기 힘든 타자세계’, ‘타자세계와 마찰’, ‘타자세계와 조화’ 등 4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모음인 ‘비주류의 숙명’은 소수자의 숙명처럼 겪게 되는 경험이다. ‘기 놀림’, ‘외로움’, ‘배려보다는 주목받는 성’ 등 3개의 주제가 포함된다. 이는 여학생 다수의 집단 속에서 남학생 수가 적은 그 자체만으로 불편감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Park In-Sook, 2011; Park Young-Rae, 2009)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런 느낌은 텅겨나감, 떨어짐, 혼자 남겨짐, 일부러 피하기, 원 밖의 나, 비소속감, 공유하지 못함, 따돌림, 거리낌, 분리되어짐과 유사한 의미이며, 학과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Kim Min · Cho Sun-Hee & Jeon Gyeong-Suk, 2014; Lee Jeong-Seop et al., 2005; Park Young-Rae, 2009). 하지만 타 학과 학생들로부터 ‘칭일짐’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전공교재와 자신을 번갈아 보는 타인의 시선에서 희귀한 존재로 보임을 느꼈다(Choi

Sun-Ju, 2003; Kim Mi-Hee, 2004)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의 성 고정관념적 시선에서 비롯된 외로움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의 의미였으며, 이는 십여년간 남자 간호대학생과 간호사가 수적으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보편화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비주류의 외로움은 남학생의 비율이 20%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1학년의 경우에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간호학과 내 남학생의 소외현상은 필연이 아니라 남학생의 구성 비율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소수집단으로서 겪게 되는 소외현상이 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간호학과 내 남학생의 구성비율과 남학생의 학과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에서 ‘배려보다는 주목받는 성’이라는 주제는 소수 성인 남성에게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차별로 작용하며, 교실과 실습지에서 남학생들은 눈에 잘 띄고 주목받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실습 및 교과과정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남학생을 간호사로 학습시키는데 있어서 학교나 병원에서 여러 자원 구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을 느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Kim Min · Cho Sun-Hee & Jeon Gyeong-Suk, 2014; Lee Jeong-Seop et al., 2005)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 형평성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과정의 수정과 실습환경의 개선을 통해 남학생들의 적응과정을 돕는 등 남학생을 위한 배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배려를 받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교수나 실습지 간호사로부터 긍정적인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학업에 매진하는 동력을 얻었다. 이는 교수들이 남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교수들의 언행에서 남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한 관심 밖의 대상이며(Kim Min · Cho Sun-Hee & Jeon Gyeong-Suk, 2014), 교수로부터 미미한 존재로 인식되었다고(Choi Sun-Ju, 2003)보고한 선

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간호학과 교수자나 실습지 현장지도자들의 남학생에 대한 인식과 이것이 남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알기 힘든 타자세계’는 남녀 성차와 여학생의 변동적 특성으로 여학생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소통의 부족으로 더 깊은 이해로 발전하지 못함을 의미하였다. 남학생들은 여성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는 동료 여학생들과 섞이지 못하는 이질감(Lee Jeong-Seop et al., 2005)과 이성 간의 불편감을 느끼고(Park In-Sook, 2011), 대학생활 초기 ‘도입기’에 여학생들과의 갈등으로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불편함(Park Young-Rae, 2009)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에 따른 다른 성격으로 인한 인식구조의 상이성과 “끼리끼리”로 표현되는 다른 행동양상을 표현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관심영역, 행동양상, 타인과의 관계양상에서 남녀가 같지 않음을 경험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Lee Jeong-Seop et al., 2005).

‘타자세계와 조화’는 학과 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여학생과 상호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언행을 신중히 하고, 캐릭터를 전환하며, 자주 마주치고 어울리려고 노력하였던 본 연구의 결과는 먼저 다가서고 맞춰주고자 자발적인 노력을 많이 하며 처세술로써 현실적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보고(Choi Sun-Ju, 2003; Lee Jeong-Seop et al., 2005; Park In-Sook, 2011)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참여자들은 학과의 공식적·비공식적 프로그램에서 여학생들과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으며 이를 통해 빨리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 자치공간에서 자주 만나면서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추후 학교적응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여학생들과의 관계를 도와주는 지지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학생들의 교우관계를 지원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과 학생 자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남녀 학생들이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학과 적응을 위해 남학생 동료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지원을 교환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남학생이 적응과정에서 외부자원으로 남자 선배와 동성으로부터의 지지를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며(Kim Yoon-Hee, 2012; Lee Jeong-Seop et al., 2005; Park In-Sook, 2011; Park Young-Rae, 2009), 반복되는 갈등에서 탈출구를 모색하는 '격동기'를 거치며, 남학생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 여학생 위주의 시설과 교과과정, 군대에 대한 고민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소수의 남학생끼리 강한 결속력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Park Young-Rae, 2009)한 선행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남자간호학생들의 학과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자선배와의 멘토링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들의 학과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자간호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남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남학생들의 학과선택 동기를 확인하고 동기를 강화키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거에 기반한 양성 중립적 간호교육환경 구성을 위해 통합적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이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근거에 따라 개발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양성평등관점에서의 실습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아울러 어려운 교우관계 개선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아 남학생의 교우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학생과 상호 지지적인 관계형성 프로그램 구축과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의 교우관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Colaizzi, P. F.(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과 남학생의 교우관계 경험의 본질적 구조는 '비주류의 숙명', '알기 힘든 타자세계', '타자세계와 마찰', '타자세계와 조화' 등 4개 주제모음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간호학과에 입학한 후 기가 높고, 외로웠으며, 배려보다는 주목을 받는 비주류의 숙명을 경험하였다. 타자세계에 속한 여학생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마찰을 겪었다. 하지만 학과 적응을 위해 여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언행을 신중히 하고, 캐릭터를 바꾸어보며, 자주 어울리려는 노력을 하였고, 같은 남학생들과 결속하며 상호지원을 교환하였다. 전통적으로 여성 영역이었던 간호학과에서 참여자들은 일부 성차별적인 경험을 하였지만 주목받는 존재로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학업과 교우관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는 남자간호사 연 배출 천명의 새로운 시대에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교우관계 경험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제도적, 개인적 수준의 지원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남학생의 교우관계를 탐색하면서 상대편 여학생의 입장이나 관점을 동시에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관계의 상호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아직도 간호가 여성의 고유 영역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이 유효함을 확인하였고, 간호교육 영역은 남성들에게 더 개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왜냐하면 대상자의 일부는 남자간호사를 더 편안하게 자신의 간호제공자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간호대학생은 이성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성 존재에 대한 파악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녀 간호대학생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학과 내 다양한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간호학과 남학생들을 위한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거에 기반한 양성 중립적 및 통합적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남학생이 인지하는 교우관계의 질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Boughn, S.(2001). Why women and men choose nursing, *Nursing & Health care Perspectives*, 22(1), 14~19.
- Chan, Z. C. Y. · Chan, Y. T. · Lui, C. W. · Yu, H. Z. · Law, Y. F. · Cheung, K. L., et al.(2014). Gender differences in the academic and clinical performanc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34(3), 377~388.
- Chiarella, M. · Adrian, A.(2014). Boundary violations, gender and the nature of nursing work, *Nursing Ethics*, 21, 267~277.
- Choi, Sun-Ju · Park, Kyung-Min(2001).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5(1), 129~139.
- Choi, Sun-Ju(2003). Male students' lived experience in the female-dominant nursing college, *Qualitative Research*, 4(1), 52~62.
- Colaizzi, P. F.(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Ed.).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48~71.
- Evans, J.(2004). Men nurses: A historical and feminist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7(3), 321~328.
- Guba, E. G.(1981). Criteria for assessing the trustworthiness of naturalistic inquiries,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Journal*, 29(2), 75~91.
- Jung, Ok-Bun · Park, Hyun-Joo(2011). Experience on delivery room practice of male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1), 64~76.
- Kang, Kyung-Ja · Yu, Su-Jeong · Seo, Hyun- Mi · Park, Myung-Sook · Yu, Mi · Chae, Young -Ran · Choi, Dong-Hee(2014).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ism in Male and Female Student Nurses, *Journal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0(4), 491~502.
- Kim, Mi-Hee(2004). A study of male students' experience majoring in nursing,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0(2), 183~193.
- Kim, Min · Cho, Sun-Hee · Jeon, Gyeong-Suk(2014). Barriers and strategies to adaptation among Korean male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3), 109~119.
- Kim, Suk-Hyun(2013). Over 1000 male students have passed the national nursing exam this year.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13[cited 2014 October 5].
- Kim, Yoon-Hee(2012).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self-esteem and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in male students major in nursing colle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university, Daejeon.
- Kwon, Young-Mi · Yeun, Eun-Ja(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3), 285~292.
- Lee, Dong-Jae(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Jeong-Seop · Kim, Nam-Jeung · Doo, Hyun-Jung · An, Ji-Yeon & Lee, Yoon-Kyung(2005).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2), 159~169.
- Lee, Ji-Won · Baek, Kyoung-Sun(2005). Perspective patterns of male nurse students on practice experience in the newborn baby roo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 11(2), 232~239.
- Lee, Kyoung-Ju · Kim, Mi-young(2014). The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up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ale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6, 46~57.
- Maxwell, J. A.(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O'Lynn, C. E.(2004). Gender-based barriers for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valence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3(5), 229~236.
- Park, In-Sook(2011).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Global Health and Nursing*, 1(2), 55~64.
- Park, Young-Rae(2009).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4), 449~458.
- Sandelowski, M.(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27~37.
- Stott, A.(2004) Issues in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the male student nurse: Implications for reten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s, *Nurse Education Today*, 24(2), 91~97.
- Sung, Mi-Hae(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22(1), 84~96.
-
- Received : 24 September, 2015
 - Revised : 04 November, 2015
 - Accepted : 12 November, 2015